



제114주년
현도기념

포덕 160(2019)년 12월 1일

제 114주년

顯道기념



포덕 160년 12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 제13장 기념송	10
천덕송_ 포덕행진곡	12
권도문	13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권도문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포덕행진곡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식후 문화 행사 (답게 살기 다짐 공연) : 천도교연합합창단

현도기념사

오늘은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한지 11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을 기해서 우리 교단은 창도 후 봉건 왕조와 유림 양반들에 의해 사도(邪道)의 누명을 쓰고 쫓겨 다니던 46년의 고난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의 천도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승님과 수십만 선열들의 희생과 고난으로 점철된 동학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암성사의 영단(英斷)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우리 선열들은 동학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생명과 재산을 빼앗겨야 했고,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유리 방황했던 도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동학 도인들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포덕 33년 공주의 신원 운동을 시작으로 삼례와 서울 광화문 그리고 보은 등지에서 수만 명이 모여 신앙의 자유를 위해 대신사의 신원(伸冤)을 탄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부의 탄압과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 등, 폭정이 끝이지 않자 결국 도중(道衆)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아 포덕 35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관군과 현대무기를 앞세운 일본군의 개입으로 동학혁명이 좌절된 후 관헌의 지목이 더욱 가중되자 의암성사는 포덕 42년에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의암성사는 권동진·오세창 등 여러 망명객과 교류하는 한편 일본을 통해 세계를 관조하면서 동학의 자유 신앙을 위해서는 뒤쳐진 조국의 개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암성사의 결심이 현실화된 것이 포덕 45년의 갑진개화운동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국내는 서북지방으로 “집집마다 동학이요 사

람마다 주문을 외운다(家家東學 人人誦呪)”는 기록이 말해주듯 교세가 급신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세를 바탕으로 의암 성사는 국내에서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여 대대적인 개화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20만 교인들은 과감하게 흑의단발을 하고 비정(秕政) 혁신을 부르짖으며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갑오동학혁명을 주도했던 동학도들임을 확인하고 또다시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평안도 태천(泰川)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도인들이 살상되거나 체포되는 사태가 속출하였습니다.

더구나 진보회장을 맡고 있던 이용구가 변절하여 친일 조직인 일진회와 진보회를 통합하고 포덕46년 11월에 ‘일본의 보호 아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유지하자’는 매국적 선언을 발표한 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내여론이 비등하면서 동학이 덩달아 친일단체로 매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진개화운동 등으로 동학이 매국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난관에 처하게 되자 의암성사는 세계 공법(世界公法)의 보호를 받는 신종교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포덕 46(1905)년 12월 1일에 ‘동학’을 ‘천도교’로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마음 놓고 천도교를 신앙할 수 있는 것은 의암성사의 높은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日帝)는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무단통치를 시행하면서 언론(言論)·집회(集會)·결사(結社)를 엄금하는 한편 교육기관과 종교단체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 충성을 다했던 친일 매국단체인 일진회마저 가차 없이 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망국의 비운과 외세의 강박이라는 시대적

역경 속에서도 전혀 포기하거나 굴함이 없이 천도교의 정체성을 보국안민의 정신적 주체로 고양(高揚)시킨 불세출의 영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도 114주년을 맞아 이러한 의암성사의 불퇴전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현 집행부가 교단의 쇄신과 증흥을 위해 ‘모시고 새롭게’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도기념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의미로서 신앙심 회복과 교단의 화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중앙총부는 앞으로 종학전문 교육기관의 설립과 연구 기관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교단증흥의 기초를 다져나가하고자 합니다.

공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동학의 역사와 그 정신을 선양하고

자 하는 사업들이 지자체를 비롯한 뜻 있는 단체들이 앞 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교단중흥은 말이 아닌 실천과 확고한 신앙이 뒷받침될 때 현실화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도기념일을 기리는 것은 바로 의암성사께서 보여주신 실천 의지를 거울 삼아 시대와 짝하여 나아가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현도기념이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한울님과 스승님께 심고하면서 기념사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포덕 160(2019)년 12월 1일

천도교 교령 송 범 두 심고

제13장 기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희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지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지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좋 을 시 고 좋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좋 을 시 고

포덕행진곡

1. 우 리 들 - 은 - 개 - 벽 - 군 신 성 의 특 사
 2. 오 늘 날 - 은 - 포 덕 - 날 심 십 의 일 일 사
 3. 우 리 들 - 은 - 포 덕 - 사 창 생 지 도 자

수 운 선 - 생 - 심 법 - 을 개 승 하 여 서
 천 도 교 - 의 - 큰 문 - 을 활 습 하 열 고 서
 운 수 있 - 는 - 그 사 - 람 만 나 게 되 면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시 운 시 변 의 논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시 운 시 변 의 논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쳐 초 포 덕 을 하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하 자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쳐 초 포 덕 을 하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하 자

[권 도 문]

「도」란 것은 사람이 한갓 지켜서 사업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여 어김이 없게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사람이 세상에 남에 한울 성품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건마는 능히 그 성품을 거느리는 이가 적고, 누구나 집에서 살지 않는 이가 없건마는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이가 적으니, 어찌 민망치 아니하리오.

성품을 거느리니 한울이 있고 집을 다스리니 도가 있는지라, 어찌 한울과 도가 멀다하리오. 그러므로 한울은 만물을 낳고 도는 일을 낳나니, 어찌 물(物)과 일이 또한 멀다하리오. 물은 일을 낳고 일은 먹는 것을 낳는지라, 어찌 일과 다만 밥을 또한 멀다하여 어길 바리오. 이러므로 한울이 없으면 생함이 없고, 생함이 없으면 먹는 바 없고, 먹는 바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을지니라.

이런고로 한울은 화생하는 직분을 지키므로 잠간도 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한울이 일부 일각이라도 쉬게 되면 화생변화

지도가 없을 것이요, 사람이 또한 일용지도를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허령창창한 영대가 가난하고 축날 것이라. 이리므로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는 금수라도 스스로 지키어 떠나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이것을 저버리며 떠날 바리오.

두려워하고 삼가함은 더욱 군자의 절중함이라. 군자는 능히 이 사단을 지키어 천도를 순히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대저 천도가 여기에 지날 바 없는지라, 삼가 지킬진저!

우리 대선생님께서 경신 사월 초오일에 강령지법을 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 모심을 알게 함이요, 한울님 모심을 알면 가히 씨 한울님 말씀함을 알지라, 어찌 의심할 바 있으리오. 사람이 이것을 다 지키면 수심정기 할 것이요, 만일 지키지 못하면 배천 역리함이라.

한울은 사람에 의지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하는지라, 어찌 도를 멀리 구하며 능히 근본을 깨달아 지키지 아니하리오.

모름지기 사람마다 신령한 마음이 있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수족이 있어 능히 동정함으로써 만사를 능히 다하

여, 마시고 먹고 입는 바는 도시 다른 바 없건마는 그 근본을 알아 지키는 것이 적으므로, 한울을 등져서 영대가 혼미하고 진실로 한울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지라.

군자는 이것을 능히 알고 순히 지켜서 잠시라도 떠남이 없으므로, 영대가 한울같이 신령하고 그 밝음이 일월같고 그 앎이 귀신같아서,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로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할지라.

근래에 들으니 혹 입도한 지 수삭이 못되어 발령이 되어 스스로 아는 바 있어 능히 도를 통하였다 하니, 진실로 민망하도다. 이같이 발령이 속히 되는 것은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의 가르침을 알게 함이니라.

이와같이 한울님이 가르치시는 이 운수에, 만일 실상을 알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능히 천지로 더불어 조화를 운용할지라, 삼가 지켜 어기지 말지어다. 만일 우리 선생님의 도가 아니시면 어찌 창생을 견지리오. 이러므로 오직 「수명을랑 내게 비네」하신 것이라.

방금 성령이 현세하여 밝음이 엄숙한지라, 능히 근본을 알아 지

키는 데에는 선생의 밝은 도로써 명하여 가르치심이 있어, 홀로 묘연한 사이에 받음을 알 터이요, 만일 이 이치를 여기는 사람은 만일 지공(萬日之功)이 있어도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할 터이니, 진실로 애석하도다.

이 몸은 선천이기(先天理氣)로 화생함이요 이 마음은 후천이기(後天理氣)로 받음이라, 이렇고로 세상사람이 한울님을 모시지 아니함이 아니언마는, 후천 운수를 알아 지키지 아니하면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는 바,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면 오직 사람의 중함으로도 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을 지라, 이와 같이 죽음이 무상한 것은 그 간섭치 아니함을 반드시 알지라. 만일 지키는 사람도 이 운수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설령 정성이 지극할지라도 한울이 간섭치 아니할 터이니 깨닫고 생각하라.

이렇고로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 비네」하신 바라. 복록은 의식이라 의식은 선천 후천이 다른바 없는지라, 밥은 한울님 은혜를 생각하고, 도는 스승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삼가 파혹하여 대도를 순성하라. 은혜를 생각한다 하여도 그 근본을 알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한울님의 감동함이 있으리오. 실상을 알고 지키어 대도 견성하기를 바라노라.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경운동)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02-732-3956 **Fax** 02-739-4533